

# 전개공, 에너지사업으로 제2의 도약

### 새만금 수상태양광 100MW 자체사업으로 발주준비 완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맞물려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발전사업에 적극 참여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및 수소 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해 모색 중이다.

우선, 태양광 사업은 공사가 2017년부터 신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와 정관까지 비워가며,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였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북도와 협력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



전북개발공사 전경

포 당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이끌어 냈었다.

그 이후로 공사는 지역주도형 500MW중 100MW를 전북도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2019년부터 사업타

당성 검토, 이사회 승인, 도의회 의결, 행안부로부터 지방공사체 발행 승인까지 행정절차를 차례차례 마치고, 2021년 말부터 발주준비를 마무리 해놓은 상태다.

다만, 대규모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핵심인 전력계통 연계사업 등의 비용분담을 위한 다른 사업자들의 선정과정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어, 2023년부터는 대규모 태양광사업 대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유류공간을 활용한 중소규모 도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금년 9월에 첫 도민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부응하고 도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3곳(익산2공단, 전주삼천, 전주쌍장)에 구축완료하여 해당 지자체에 인계하였고, 금년에는 전주쌍장에 1곳, 내년에는 군산에 1곳 추가 구축하여 도내 수소차 보급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에너지사업이야말로 공사가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초단계부터 환경훼손과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발생하는 발전이익을 도민들에게 재환원시킬 수 있는 ESG경영의 훌륭한 방안"이라며 강한 실천의지를 밝혔다. /김옥기 기자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  
LX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황병철 본부장(사진 오른쪽부터)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가속화

### LX-산단공-공간산업진흥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협약

공장 인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공 협력이 가속화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이 지난 17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플랫폼(LX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world',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actory-ON'을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협업한다. 그동안 공장을 설립 운영하려는

국민은 적합한 입지 선정과 규제 사항 검토를 위해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 부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였다.

앞으로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해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모델이 구축되면 시간이 단축되는 한편 사용자는 간편하고 쉬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LX 어명소 사장은 "각 기관의 협업으로 공장 인허가에 불필요하게 소요된 시간·비용 부담이 컸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기술과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남원농협, 고죽통합센터서 신규 조합원 250여명 교육 진행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최근 고죽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신규 조합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2023년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변성섭 안성교육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협동조합의 이해와 조합원의 자리에 대한 주제로 특강했으며, 농촌인력개발센터 이용 및 홍보,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영농 기술 교육도 진행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환영사에서 "신규 조합원이 영농생활에 원활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신규 조합원은 남원농협의 주인으로서 책임 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자치도 스마트팜 육성, 국가가 주목

### 기재부 조규산 농림해양예산과장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 현황 파악

스마트팜 육성의 선두주자를 자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뜨겁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조규산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정부 관계관들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및 창업 상황과 스마트팜 관련기업 기술 실증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혁신밸리 임대관에서 방울토마토로 창업한 양경원 청년농부(혁신밸리 청년창업 교육 2기 수료생)와 이소임 청년창업 교육생,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관계자 등과 현장담화회를 통해 스마트팜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농협 전북본부,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지난 17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묘역관리와 태극기 꽂기행사를 통해 '새묘역 가꾸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정환 본부장, 박병철 노조위원장, 이진산 임실군지부장 등 전북본부 임직원 15여명이 참여하여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조규산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정부 관계관들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현장간담회에서 양경원 청년농부와 이소임 교육생은 예비 청년농부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스마트팜 시설 구축에 필요한 종자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최고 시설에서 최고의 창업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 창업-사후관리,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규산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은 "스마트팜 청년보육과 안정적 정착 방안, 관련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업무 협약을 맺은 2018년부터 매년 1사 1묘역 가꾸기 행사를 통해 825천정 군 묘역 1,596기의 환경정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애국지사들의 호국야기를 본받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의미를 본받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7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새묘역 가꾸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환경청, 전주천 일원서 수해대비 모의훈련 실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지난 17일 전주시 전주천 일원서 일원에서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초 지자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펼쳤다.

이날 훈련은 하천수위 상승시 제방고 부족구간에서 하천수 월류를 가정,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는 훈련이다. 전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함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하천관리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금년도 홍수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계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은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실시간 CCTV 영상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합한 재난대응 통합시스템을

이번 홍수기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통합시스템 및 기관별 역할협조를 위한 도상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재난대응 통합시스템'은 지자체가 재난 대피 방송은 가능하지만, 실시간 하천 상황을 알 수 없고, 환경청은 실시간 하천 상황 확인이 가능하지만 재난 대피방송이 불가능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국가하천 주변 위급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음성전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 제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사전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